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 — 전자공동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

조 동 기\*

〈목 차〉	
I. 서론	IV. 정보화사회에서의 신뢰와 익명성의 문제
II. 정보화사회에서의 정체성의 문제	V. 논의의 정리
III.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문제	VI. 조사결과의 분석
	VII. 맺는말

### I. 서 론

최근들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전자공동체(cyber-community)의 형성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새롭게 등장하는 구조적 질서 뿐만 아니라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전자공동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뢰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모든 공동체는 신뢰(trust)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이루어진다. 우정과 협신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전자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면접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진공상태(social vacuum)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또한 전자공동체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인 과정을 거쳐 구성적으로 창출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전전한 자아정체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사회적 관계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 절차와 규준을 바탕으로 조직화되며 이러한 조직적 복합성과 비인격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개인에 대한 기록의 관리를 위해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체성의 위기, 프라이버시의 문제, 신뢰의 상실이 정보화사회에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정보화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굴절되거나 증폭되어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정보화사회에서 정체성의 위기가 맞게 되는 새로운 계기,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위협, 그리고 신뢰와 관련한 익명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생활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Ⅱ. 정보화사회에서의 정체성의 문제

오늘날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체성(identity)의 위기는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합리화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보화의 결과 나타난 독특한 사회적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체성의 위기가 정보화의 맥락에서 중요시 되는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아의 발달과 사회체계간의 상호의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인쇄술의 발명이래 통신매체를 통하여 매개되는 간접적인 경험은 사회적 관계의 조직화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전자적으로 매개되는 경험은 오늘날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이 취하게 되는 구조적인 특징과 그것이 정보화의 맥락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정체성 위기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자아와 정체성의 개념

자아와 정체성은 각각에 대한 개념규정 뿐만 아니라 그 둘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볼 때 자아는 비교적 개인주의적인 분석의 틀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반면에 정체성은 자아규정에 대한 집단주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1)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연구경향은 개인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미국의 학문적 전통과 집단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유럽적 전통으로 구분될 수 있다(Deaux,

또한 자아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에 정체성은 자기규정의 구체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체성은 퍼스널리티 체계가 유동적인 행위의 맥락과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담당하게 되는 다양한 지위와 역할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상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다(Casey, 1995: 58). 개인이 정체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그들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동시에 습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정체성의 유형과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삶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통합의 유형 사이에는 구조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흔히 자아는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으로,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지칭되기도 한다(Deaux, 1992: 15). Hogg 와 Abrams(1988)은 개인적 및 사회적 정체성을 구분하기 위한 구조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사회적 정체성은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기술(self-description)’인 반면에 개인적 정체성은 대개 ‘개인의 구체적인 속성을 지칭’ 하며 ‘본질적으로 친밀하고 지속적인 개인적 관계에 관련되어 있고 그로부터 출현’ 하는 것이다(25). 이에 반하여 Turner(1987)에 있어서 사회적 및 개인적 정체성의 구분은 자아의 인식의 추상수준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인식은 어느 수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가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간의 구분은 상황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상적인 자아를 강조하는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심리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자아가 발달하고 실행되는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집단성을 부각시켜 주지만 사회적 개념규정을 특징화시키는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Gleason(1983)은 두가지 구별되는 개념의 발달을 추적해내고 있다. 그 한 줄기는 Mead와 Goffman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다중적 정체성을 가정하고 외부적인 초점,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정하는 입장이고 다른 한 줄기는 보다 심리학적인 전통으로서 Erickson의 연구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합되고, 내재적인 초점을 가진 비교적 영속적인 정체성을 가정하는 입장이다.<sup>2)</sup>

1992).

2) 자아와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개인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일부 이론가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실체적인 자아, 내재적 본질 등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Descartes의 사유(cognito), Kant와 Husserl의 초월적 자아(transcendental ego), 계몽주의의 이성(reason) 등에서 비춰지는 개

Mead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간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Berger and Luckmann, 1966). 이 시각에서는 개인적인 의미라는 것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따라서 개인적 정체성은 그것이 형성되게 되는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reakwell(1986)도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간의 뚜렷한 구분에 반대하면서 “개인적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에 동화되고 남은 비교적 항구적인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17).

성찰적인 작업으로서의 자아는 어느 정도 비정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정체성도 성찰적인 인식을 전제로 한다. 자아정체성은 개인이 소유한 특질이나 그 집합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성찰적으로 이해한 자아이다. 이렇게 볼 때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행위의 연속성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며, 개인의 성찰적 활동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구분하지 않고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정체성의 위기의 본질

현대사회의 합리성은 공동체나 전통이 가지고 있는 ‘보호막’(protective cocoon: Giddens, 1991)을 붕괴시키면서 보다 대규모적이고 비인격적인 조직의 형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전통적 환경에서 제공되었던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한 채 자아정체감에 대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비교적 분명하게 규정된 경계, 전통적인 역할모형, 그리고 개인을 공동체에 결합시키는 동일시와 혼신에 의하여 지지되어 왔지만,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공동체에 의해 주어졌던 귀속적인 역할들이 더 이상 개인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생활세계의 내적 식민지화”라는 Habermas(1981)의 개념은 합리화 과정이 현대사회의 공동체적 구조에 대하여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잘 설명하여 준다. 정보에 기반한 정치경제의 요구를 수행하면서 체제이성은 개인의 정체를

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정체성은 본질적이고, 실체가 있고, 단일하고, 고정적이며 근본적으로는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반해 다른 이론가들은 자아에 대한 비실체적인 개념을 제시하거나(Hume) 자아와 정체성을 실존적인 계획이나 개인의 창조물로 인식한다(Nietzsche나 Heidegger).

유지시키는 생활세계 — 당연시되는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의 경험과 관계의 영역 — 의 형태를 파괴시켰다는 것이다.<sup>3)</sup> 기술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의 합리화는 과거에 비공식적으로 조직화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조정하고 통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합리화는 수세기 동안 개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기반을 제공하여 왔던 생활세계의 구조를 파괴시키고 재조직화하였다. 또한 합리화에 의해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됨에 따라 개인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분화된 가치를 내면화하게 됨으로써 주관적 위치를 상실하고 체계가 정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익명의 존재로 축소된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에 대하여 비관주의적 입장과 낙관주의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비관주의적 견해를 대변하는 Lasch(1978, 1984)는 개인이 더 이상 부모의 권위와 지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과거나 미래 또는 타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새로운 이기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며 자아에 대한 감각과 사회적 소속감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아가 쇠퇴하게 된 원인으로 일상적인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존재에 대한 역사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국가와 기업적 관료제의 등장을 들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자신과 전통적 공동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권위에 종속적으로 되었다. 기업, 학교, 병원, 대중매체 등이 문화적 영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아도취(narcissism)은 이러한 의존성의 결과 나타난 심리적 결과이다. 자아도취자는 자아감각을 결여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아에 전념하게 된다. Lasch는 이러한 자아의 상실은 대부분 제도화된 권위의 쇠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가족과 전통은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는 초자아(superego)의 쇠퇴를 결과한 것이 아니라 가혹하고 처벌적인 초자아를 만들어 내었다(Lasch, 1978).<sup>4)</sup>

한편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낙관주의는 개인을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의 창조자로 간주하는 견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자아와 공동체적 삶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낙관주의적 견해는 현대사회의 제반 변화를 개인에게 유익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현대사회의 변화는

3) 무자비한 합리화를 가정하는 Weber나 원형감옥을 설정하는 Foucault와는 달리 Habermas는 생활세계의 식민자화가 자유로운 의사소통행위에 의해 지양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Lasch(1978)에 따르면 자아도취는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이다. 전통과 권위의 붕괴로 인하여 개인은 처벌적인 초자아의 희생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문화의 희생물이 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개인의 과거와 그 억압적 유습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이다. Giddens와 같은 사람들은 자아를 능동적이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화에 대하여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 현대의 사회적 삶은 “새로운 가능성의 활용”을 더욱 확대시켜주는 것으로 인식된다(Giddens, 1991: 175). 현대사회의 합리화 과정에서 정체성이 소멸되기 보다는 단지 새로운 모습과 유형으로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모형에 대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는 것이다.

### 3. 정체성의 구조와 다중성(multiplicity)

사회의 합리화 과정에서 초래된 정체성의 위기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하여 정체성의 구조와 그 유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의 조직적인 복합성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은 서로 다른 요구들이 조화를 이루어 내어야 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많은 이론가들이 이러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Mead(1962)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준거로 하여 자신을 다양한 종류의 자아로 분화시키며, “다중적 퍼스널리티는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42).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론가들 사이에서 그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어떤 측면이 보다 중요한가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정체의 다중성(multiplicity)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은 대체로 수용되고 있다(Casey, 1995: 62-71).<sup>5)</sup>

특정한 상황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개인은 서로 상이한 유형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각각의 상황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제시’하게 된다(Goffman, 1959). Goffman에 따르면 개인은 특정한 양식의 다중적 자기정체성을 발전시킨다. 자아는 기제나 욕구의 체계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다. 개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되는 연기이외에는 중심적인 “자아”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자아는 서로 구별되는 정체성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역할관계의 수만큼 많은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일부 이론가들은 정체성에 대한 다중성의 가정이 개념적으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Thoits(1983)은 다중성은 특정한 하나의 역할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적 시각에서 Linville(1987)도 자아의 복합성이 증대됨에 따라 스트레

---

5) 오늘날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아정체의 다중성은 정체성(identity)이라는 용어의 뿌리가 되는 “동일함(iden-)”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스에 대한 저항력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자아정체성의 다중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하고 나아가서 그들간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Stryker(1987)는 다양한 정체들이 그 현저성(salience)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화된다고 주장한다. 정체의 현저성은 개인이 특정한 역할에 대하여 가지는 헌신(commitment)의 수준으로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정체성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으로 정의된다(Stryker, 1992: 873). 그는 또한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특정한 속성이 “중추적 지위(master statuses)”로 기능하면서 역할에 대한 의미를 수정함으로써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Thoits(1991)과 같은 다른 사회학자들은 정체성의 위계가 주관적 중요성이나 심리학적 중심성을 축으로 하여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체성의 구조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는 Rosenberg(1988)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정체성에 대한 특정한 서열을 가정하는 대신 정체성의 구조가 개인마다 다르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도출된 법칙화된 모형보다는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4. 정보화 사회에서의 다중적 정체성의 함의

단일한 정체성이 안정된 제도와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문화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다중적 정체성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정보화사회에서의 정체의 다중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체성의 과편화(fragmentation)를 주장하는 일부 논자들은 이에 대하여 자아가 본질적으로 붕괴되어 개인은 자아정체성의 내적인 중심을 상실한 다중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후기구조주의나 탈근대성의 맥락에서는 개인이 다양한 상호작용의 맥락 만큼 많은 종류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른 논자들은 맥락의 다양성을 단순히 다중적 자아로의 분해나 자아의 과편화를 초래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은 다양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도 행위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찰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정체성의 응집력이 보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6)</sup>

6) Giddens는 자아의 과편화라는 현상은 개인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가지 긴장과 난국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Giddens는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자아정체성이 일관성 있는 화술(narrative)을 유지하기 위하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이 입지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커졌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불안정된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Lash and Friedman, 1992: 174).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적으로 매개된 경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기초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은 가용한 정보의 유형을 가져내고 자신의 개념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은 매개된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인지적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를 피하려는 원칙을 따르게 된다. 즉 가용한 정보의 과잉이라는 현실 속에서 개인은 잠재적으로 방해가 되는 지식을 배제시키거나 재해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만을 취하게 된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취사선택은, 자신의 가치관에 배치되는 견해나 생각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편견이나 거부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조화를 피하려는 것은 개인의 존재론적 안정감을 유지시켜주는 보호막(protective cocoon)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다(Giddens, 1991: 188). 전자적 매체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현실을 구성하는 측면이 있는 하지만 이것이 기호나 이미지가 전부인 '초현실(hyperreality)'이라는 자율적인 영역을 만들어낸다고 보기是很 힘들다. 전자적으로 매개된 공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새로운 역할의 형성과 자기개방, 자기표현 등의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협동심에 근거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정체성의 사회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은 보다 유동적이고, 다면적이며, 자기성찰적이고 변화와 혁신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정체성은 또한 상대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여전히 역할과 규범의 정해진 틀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새롭고 가능한 정체성의 한계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하지만, 정체성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규정되고, 고정적이고,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Lash and Friedman, 1992: 141).

급속하게 전개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따라잡고 적응할 수

여 해결되어야 할 딜레마로 간주한다(1991: 188). 여기에는 통합(unification)과 과편화(fragmentation), 무권력(powerlessness)과 전유(appropriation), 권위(authority)와 불확실성(uncertainty), 그리고 개인화된(personalized) 경험과 상품화된(commercialised) 경험간의 딜레마가 포함된다.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때, 안정성보다는 유동성이 보다 전진한 정체성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정체성의 위기는 새롭고 안정된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창조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정되고 단일화된 측면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자아정체성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Ⅲ.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문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문제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정보화사회에 독특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과 더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수집하고 보관하였던 개인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에 의해 그것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용이해졌다. 수집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그만큼 그것이 오용될 소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문제들은, 프라이버시를 기술적인 관계나 법적인 관계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관계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 1.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전적인 접근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프라이버시를 바라본 J.S. Mill에게서 발견된다. Mill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고와 행위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고 규정한다 (Michael, 1994). Mill에 있어서 개인은 '자기자신,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개인이었는데 이러한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특징은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를 가지고 자연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그 자체로 가치있는 것이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간의 비교적 뚜렷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데, 과거에는 공동체 성원들에게 개방되어졌고 절대권력자에게 종속되었던 공적영역과 그렇지 않은 사적영역 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두 영역 사이의 구분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은 또한 외부의 침입과 간섭에 저항하는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자신에 관한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역사사회학자 Barrington Moore(1984)는 프라이버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바램으로서 개인이 자기가 실행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회적 의무를 지게되는 경우 나타나는 것”이다(Moore, 1984: 268). 이러한 개념의 프라이버시는 전산업사회에서 개인이 공동체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그리고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의미한다. Moore가 정의한 다른 한가지 의미는 외부적 권위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제도로부터의 프라이버시를 추구한다. 이것은 곧 공공 행정기관이나 사업체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Moor(1990)에 따르면 프라이버시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그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정보가 외부의 침입이나 감시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Moor, 1990: 79). 프라이버시에 대한 Moor의 정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프라이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상황(private situation)이라는 개념이 유용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라이버시가 “제한된 접근”(restricted access)의 상태라는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올바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료의 유포에 대한 통제로서의 프라이버시와 방어공간 또는 제한된 접근(restricted access)으로서의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후자는 혼자있을 상태에 대한 것(상황프라이버시 situational privacy)이고 전자는 개인적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정보프라이버시 informational privacy)이다(Elgesem, 1996: 48).<sup>7)</sup>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하여 Westin(1970)은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이 그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수 있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7)라고 하였고, Miller(1971)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40)으로 정의하였다.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관계이다. 이것을 단순히 기술적인 관계나 법적인 관

---

7) 정보 프라이버시 대신에 Elgesem(1996)은 개인적 프라이버시(personal privac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48). 한편 Rosenberg(1992)는 프라이버시를 영역적(territorial), 개인적(of the person), 그리고 정보(in the information context) 프라이버시라는 세가지 측면을 구분하고 있다(197-8).

계로 축소시키는 것은 오류이다. 이와 함께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이분법적 접근도 문제가 있다. 사적인 상황은 공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하며 사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규범도 공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2. 프라이버시의 가치와 그 보호의 필요성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개인적 가치는 개인의 정체성, 존엄성, 창조성 그리고 자율성과 관련이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나름대로의 가치, 신념, 퍼스널리티를 가지는 독특한 개인으로서 발달하는 정체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은 프라이버시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정체를 형성하며 행위의 기준을 선택한다. 프라이버시는 또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 사람들은 공개하기를 꺼리는 자신만의 심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창조성의 개발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Fried, 1984; Gavison, 1984; Wessells, 1990).

프라이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친밀한 인간관계, 다양성, 민주주의 등과 관련되어 있다.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의 발달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Gerstein, 1984). 프라이버시는 또한 사회적 다양성과 관용의 형성을 촉진 시킨다. 정치적으로 볼 때 프라이버시는 국가를 통제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프라이버시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가져오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의 이익이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정보가 그 개인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개인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여 정보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전혀 무관한 맥락에서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는 인

간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인간관계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인간관계는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의 정도는 대개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사적인 정보가 당사자의 통제없이 유통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통제권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Benn, 1988).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존중받기 위해서도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 3.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고, 관리되고 유포되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프라이버시는 정확성, 보전성, 보안성, 적합성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Miller, 1990: 269). 정확성(accuracy)은 개인에 대한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내용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범죄경력이나 병력에 대한 오래된 기록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보전성(integrity)은 컴퓨터 시스템이 수집된 정보에 대해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정보의 보전성은 하드웨어의 오작동, 소프트웨어의 오류 또는 조작자의 실수 등에 의해 손상을 받을 수가 있다.

보안성(security)은 컴퓨터 시스템과 그것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된 은행계좌에 대한 한 공학도의 불법적인 접근(hacking)에서 보여지듯이 정보화사회에서는 보안성에 위협이 항존하고 있다. 적합성(adequacy)은 수집된 자료가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에 보관함에 따라 다른 곳으로의 정보의 이전이 용이해졌고 정보의 존속기간도 과거에 비해 훨씬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합성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흔히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주로 적합성과 보안성에 관계된 것이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다양하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자료의 정확성, 보전성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더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인 적합성에 대한 관심을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4. 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개인에 대한 자료가 전자적 매체로 표현된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이다. 국가기관의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개인의 인적사항과 재산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고 기업이나 기타 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소비자 정보의 형태로 많은 양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전자매체로서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에 관한 자료를 아주 빠른 속도로 분류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효율성이 외의 사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문법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창출해 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조작함으로써 개인을 구성한다(Poster, 1990: 96).<sup>8)</sup> 개인에 관한 방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개인에 대한 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으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과 같은 여타 공공 또는 사적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도 정보의 오용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행정적 효율성이나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치적 탄압이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로 적합성과 보안성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로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보전성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보험에 관한 정보가 잘못 기록되어 그 개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대한 기록이

---

8)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의 침해나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개인 정체성의 다중화와 또 다른 자아의 구성으로 간주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자아는 “실제의 자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 자아에게 해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Poster, 1990: 98). Poster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정보통신과 데이터베이스는 벽이나 장문, 감시대나 감시인이 없이 감시를 행사하는 ‘초원형감옥(Superpanopticon)’을 형성한다(93).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양식(mode of 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Foucault적인 원형감옥(panopticon)을 초월하는 초원형감옥(Superpanopticon)이라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sup>9)</sup>

프라이버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중요한 사실들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Miller, 1990),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정치적인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견해에 반하는 의견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개인에 대한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축적됨에 따라, 개인과 사회체계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요구와, 검열이나 정치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간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프라이버시는 공공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민주사회에 요구되는 필요요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보수집, 저장, 처리, 그리고 유포기술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비책은 기술적인 효율성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 전문인력의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직업의 사회적, 윤리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V. 정보화사회에서의 신뢰와 익명성의 문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전자공동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체성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비면접적 접촉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상에서 사람들간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9) Poster(1990)에 따르면 정보화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성격은 전체과정의 일부분만 보여줄 뿐이며 보다 큰 사회적 의미는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에 훈련되고 쉽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1. 신뢰와 사회적 질서

"협동에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려는 상대방의 자진성(willingness)" (Misztal, 1996: 18)으로 정의될 수 있는 신뢰(trust)는<sup>10)</sup> 개인에게 안정감과 안전성 뿐만 아니라 자아의 탐구를 위한 자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건전한 자아정체성의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Giddens의 말을 빌리자면 개인의 '존재론적 안정감(ontological security)'이 신뢰관계의 형성을 기초로 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신뢰의 형성이 없이는 사람들은 항구적인 실존적 불안과 자신들의 정체감에 대한 자신감을 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뢰, 존재론적 안정감 그리고 자아정체성의 성취는 성숙한 개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신뢰는 또한 친밀한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순수관계'에서 보여지듯이, 친밀한 인간관계는 당사자들의 상호신뢰에 기초를 두게 된다. 인간적 관계가 외부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에 기초를 두었던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사람들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친족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적인 지원에 의지함으로써 신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신뢰가 지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친족적 의무가 일상생활이 조직화되는 안정된 신뢰의 조건을 조성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에 있어서의 신뢰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형태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신뢰는 사회적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도 기여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질서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사회현실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설명해주는 안정적 질서(stable order), 규범적 통합에 기초하고 있는 응집적 질서(cohesive order), 그리고 사회적 협력을 의미하는 협업적 질서(collaborative order). 각 질서의 유형에 따라 신뢰가 담당하는 역할은 상이하지만, 신뢰는 사회의 안정성, 협동성, 그리고 응집성의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질서에 대하여 기능적이다(Misztal, 1996: 64).

10) 신뢰는 '신념'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현신으로의 도약(leap to commitment)'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거래상에서의 'weak inductive knowledge'라고(Simmel) 하는 확신의 형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Giddens, 1991: 18-9).

11) 이러한 신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Giddens, 1990: 94).

## 2. '순수관계(pure relationship)' 와 친밀감

인간의 관계가 단절적이고 비인격적 구조에 의해 매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객체화되고 조작적인 인간관계가 흔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 삶의 새로운 영역에서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된 '순수관계(pure relationship)'의 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Giddens, 1991; Misztal, 1996). 순수관계는 외재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관계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순수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상호공개(mutual disclosure)의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뢰는 더 이상 친족, 사회적 의무 또는 전통적 의무 같은 관계 외부의 기준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자아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순수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성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장기적인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순수관계는 친밀감(intimacy)에 바탕을 두게 된다. 관계 그 자체만을 위하여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순수관계는 관계 당사자들간의 상호 신뢰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그 상호 신뢰는 다시 친밀감의 성취를 가능케하는 상호개방을 통해서 형성된다. 친밀감은 프라이버시의 다른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전제로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율성과 타인들과의 감정이나 경험의 공유 사이의 균형은 개인들간의 친밀함이 상대에 대한 의존성에 변질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친밀감은 상대의 개인적 영역, 즉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친밀감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흔히 대규모의 비인격적 조직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인간소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된다(Bensman and Lilienfeld, 1979).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은 개인의 일상적 삶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개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비인격적인 맥락에서 영위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밀감에 대한 추구는 대규모적이고 비인격적인 체계 속으로 편입되지 않은 친숙한 환경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

12) 그러나 친밀감에 대한 추구가 대규모 체계와 사회과정의 전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친밀감의 성취를 통해 프라이버시라는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Giddens, 1991: 94).

### 3. 익명성과 가명성의 문제

전자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는 면접적 상호작용과는 매우 상이한 사회적 진공상태(social vacuum)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익명성(anonymity)과 가명성(pseudonymity)은<sup>13)</sup>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성의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자적 공간에서 일차적으로 면접성의 결여에 의해 발생하는 익명성은 성별이나 지위 같은 다른 사회적 정체성이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익명성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입장이 있다.

익명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익명성이 사회적 규범에 대한 경시 분위기를 조장하고 상호성의 기반이 되는 상호존중의 원칙을 무시하는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협동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Danielson, 1996). 과장과 거짓에 보다 취약하여 상호작용과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익명성으로 인해 의견을 절제없이 내어놓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proull and Kiesler, 1991).

그러나 익명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익명성이 개인에게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Myers, 1987; Reid, 1991). 전자 공간에서 개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억제되어 있는 자기정체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표현하고 실험할 수 있다”(Reid, 1991). 익명성은 또한 연령이나 성별 같은 사회적 정체성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평등한 대화상황을 설정할 수 있게 해 준다.<sup>14)</sup>

전자적 공간에서 개인들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탐색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신뢰성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익명성은 또한 참여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13) 어떤 사람들은 전자적 공간에서 익명성과 가명성은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며, 가명성이 익명성보다 신뢰의 형성에 더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Danielson, 1992).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양자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14) 일부 논자들은 이러한 평등한 대화참여를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표현으로 보며(Walther, 1992),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들에게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이 더 힘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Baron, 1984).

## V. 논의의 정리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성찰적 작업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으로서, 끊임없는 수정과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체성의 위기는 ‘생활세계의 내적식민지화’의 결과 전통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주었던 공동체적 생활세계가 파괴됨으로써 등장한 것이다. 다양한 가치와 문화의 내면화 결과 나타난 정체성의 다중성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중심을 상실하고 자아가 과편화됨을 의미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롭고 안정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요구되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은 가용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존재론적 안정감’을 성취해 나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시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발견한다. 컴퓨터는 단순히 자기표현을 위한 매체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사회적 관계로서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적으로는 자아정체성, 자율성, 존엄성, 창조성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다양성, 민주주의,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그 개인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 속에서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확산과 더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절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신뢰는 개인에게 존재론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주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 협동성, 응집성의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거시적 사회질서의 유지에도 기능을 한다. 면접적 접촉의 결여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전자적 공간에서 개인들간의 관계는 장기간의 성찰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신뢰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며, 그러한 신뢰는 상호공개(mutual-disclosure)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밀감은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안정감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친밀감의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자율성과 상호개방간의 균형이 신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전자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신뢰의 형성에 반드시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익명성은 개인이 자유롭게 새로운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보다 평등하고 참여적인 그리고 보다 친밀한 인관관계의 형성에 기능적일 수 있다.

## VII. 조사결과의 분석

본 조사는 「PC 통신 사용자들의 생활양식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제목으로 상업용 통신망의 하나인 천리안을 통하여 1996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되었다. 15세 이상 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내용에는 신뢰성, 정체성, 익명성,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생활에 관한 것과 동호회 및 대화방 이용실태에 관한 것이 포함되었다.

조사과정은 천리안의 전자설문 전용포럼을 통해서 질문지를 공개하고 천리안 로그인 초기화면에 조사가 실시된다는 것을 알린 후,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sup>15)</sup>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내용은 시스템에서 처리되어 원자료 파일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총 2,998건의 유효사례가 수집되었다.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연령별, 성별, 직업별, 거주지역별 편颇(skewness)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상으로는 20대가 56%, 성별로는 남성이 85%, 직업별로는 학생이 41%,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이 37%로 나타나 성별에 의한 편颇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PC 통신 사용자들은 정보공간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신상에서 나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아보는 계기를 발견한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응답자의 57.0%가 동의하였고, “PC 통신을 이용하다 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50.1%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통신상에서 대화(chatting)를 할 때 실제의 자기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인물로 자신을 제시하며(97.0%), 따라서 통신상에 제시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느낀다(77.3%).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시도하는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주어진

15)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사회조사에서는 본 조사에서 이용한 것과 같은 사후표집보다는 사전표집을 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조동기, 1996).

〈표 1〉 통신상에서 제시된 자신과 그에 대한 자기반응

단위: N(%)

반 응 자기제시방식	통신상에서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			계
	동일*	변화†	전화‡	
자연스럽게 느낀다	1,798 (82.2)	473 (65.5)	45 (50.6)	2,316 (77.3)
약간 거부감을 느낀다	383 (17.5)	241 (33.4)	41 (46.1)	665 (22.2)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	6 (.3)	8 (1.1)	3 (3.4)	17 (.6)
전 체	2,187 (100.0)	722 (100.0)	89 (100.0)	2,998 (100.0)

$$\chi^2 = 132.62(p < .001)$$

주) \*실제의 자신과 동일한 인물로

† 실제의 자신에 준하는 새로운 인물로(alternation)

‡ 실제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인물로(conversion)

기준과 가치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변신인 ‘변화(alternation)’이고 실제의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추구하는 ‘전화(conversion)’의 경우는 드물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상에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과 제시된 자기모습에 대한 반응을 교차시켜 보면, 통신상에서 자신을 실제와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대부분 자연스럽다고 느끼거나 약간의 거부감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한편 통신상에서는 성별(16.8%), 연령(32.4%), 직업(22.5%), 그리고 학력(12.0%) 등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범주로 나타났다(〈표 2〉). 실제 생활에서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특히 나이와 성별의 영향이 통신상에서 더 크게 행사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컴퓨터 통신상의 담화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범주들의 규정적 성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개인들은 자기정체성이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Lash and Friedman, 1992: 142).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위기’는 새롭고 안정된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창조적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Rider, 1995: 40). 다중적인 자아정체성이 자아의 과정화로 이해되며 보다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실험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

〈표 2〉 자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주

단위: N(%)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주	통신상에서	실제 생활에서
성별	848 (16.2)	560 (10.4)
나이	1,694 (32.4)	1,338 (24.7)
직업	1,174 (22.5)	1,487 (27.5)
소득수준	114 (2.2)	532 (9.8)
학력	628 (12.0)	872 (16.1)
출신지역	239 (4.6)	179 (3.3)
기타	162 (3.1)	183 (3.4)
특별히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	368 (7.0)	259 (4.8)
전체	5,227 (100.0)	5,410 (100.0)

\*중복응답처리결과

지고 있다는 것이다.

## 2.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응답자 중 거의 대부분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99.2%), “컴퓨터 통신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47.7%가 동의하였고 21.8%가 동의하지 않았다.

컴퓨터 통신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에 대하여 지난친 상업주의(20.6%)나 불필요한 정보의 과잉(19.5%)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사생활의 침해를 우려한 사람은 11.9%였다(〈표 3〉). 응답자들이 ‘사생활의 침해’를 주로 적합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본다고 할 때, 그 자체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컴퓨터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나(보안성) ‘불필요한 정보의 과잉’(정확성), 그리고 ‘지나친 상업주의’(적합성)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응답자들의 높은 관심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생활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주 큰 관심사는 아닌 듯이 보인다. “전자주민증(IC 카드)”에 대한 평가에서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거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6%이고 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 43%였다(〈표 4〉). 홈뱅킹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정보누출이나 취약한 신뢰성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가 28.2%였고, 자주 또는 가끔 이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1.0%였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프라이버시

〈표 3〉 컴퓨터 통신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

우려되는 내용	N(%)
사생활의 침해	357 (11.9)
정보의 편중	321 (10.7)
지나친 상업주의	619 (20.6)
컴퓨터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	537 (17.9)
음란물 등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437 (14.6)
불필요한 정보의 과잉	585 (19.5)
서구문물의 범람	25 (.8)
기타	117 (3.9)
전 체	2,998(100.0)

〈표 4〉 “전자주민증(IC 카드)”에 대한 평가

우려되는 내용	N(%)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543 (18.1)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늘어날 것이다	1,095 (36.5)
행정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이다	1,300 (43.4)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60 (2.0)
전 체	2,998 (100.0)

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높으나 이러한 관심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는 다소 약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반 요인들 중 자료의 관리와 관련된 보안성이나 자료의 이용과 관련된 적합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자료의 입력(정확성)이나 자료처리(보전성)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3. 익명성과 신뢰에 대한 인식

통신상에서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보다 상대방을 더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7.3%). 건전한 전자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형성이 전제 된다고 할 때 위의 결과는 비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컴퓨터 통신 상에서 비교적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 동호회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나는 동호회 사람들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7.8%로 나타났다.

익명성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통신상에서의 전반적인 신뢰

〈표 5〉 통신상에서의 신뢰도

단위: N(%)

실제와 비교하여 통신상에서 신뢰하는 정도	전반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일때
실제보다 더 불신한다	2.019 (67.3)	1.917 (63.9)
실제와 마찬가지다	852 (28.4)	1.009 (33.7)
실제보다 더 신뢰한다	127 (4.2)	72 (2.4)
전 체	2.998 (100.0)	2.998 (100.0)

〈표 6〉 익명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에 대한 평가

단위: N(%)

익명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다”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전적으로 동의	631 (21.0)	551 (18.4)
대체로 동의	1.337 (44.6)	1.185 (39.5)
그저 그렇다	562 (18.7)	857 (28.6)
대체로 반대	373 (12.4)	308 (10.3)
전적으로 반대	95 (3.2)	97 (3.2)
전 체	2.998(100.0)	2.998(100.0)

도와 상대방이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할 때의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 둘 사이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응답자들은 익명이나 가명일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외견상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사람들이 익명성을 가정할 때 보다 더 솔직해지고 숨겨져 있는 생각을 쉽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통신상에서 익명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보면, “통신상에서는 나의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하여 65.6%가 동의하였고, “통신상에서는 나의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5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통신상에서의 익명성은 신뢰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보다는 자유로운 대화를 촉진시키고 평등한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VII. 맺는말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

해됨에 따라 그에 기반을 두어왔던 개인의 정체성이 단일성과 안정성을 상실한 결과이다. 사회가 고도로 합리화되고 구조적 복합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개인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분화된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면서, 자아정체성이 다분화되고 이질화 되었다. 개인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통일과 과편화간의 긴장에 대하여 사회의 정보화는, 한편으로는 개인이 새롭고 다양한 자아정체성을 탐색하고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질화와 과편화를 가속화시키는 여건을 만들내기도 한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는 개인들이 전자적 공간을 자아정체성의 계발을 위한 적극적인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개인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다중성은, 사회의 정보화의 과정 속에서 중심을 잃고 분열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의 유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정보화사회에만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위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에게 존엄성, 자아정체성, 창조성 그리고 자율성에 관련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 사회적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 등에 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자료의 입력과 관련된 정확성(accuracy), 자료의 처리와 관련된 보전성(integrity), 자료의 보호와 관련된 보안성(security), 그리고 자료의 이용과 관련된 적합성(adequacy) 등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조사결과는 일반적으로는 주로 보안성이나 적합성에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확성이나 보전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하고 민주적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위한 공공기관이나 사적 조직체의 정보에 대한 요구와, 정치적 탄압이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간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던 공동체적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위한 신뢰의 형성이 문제시된다. 특히 면접성(眠接性)의 결여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적 공간에서 신뢰의 확보는 전자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상호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전제로 한 상호공개(mutual disclosure)를 필요로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상호신

뢰와 관련하여 익명성은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규범과 상호존중의 원칙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진실성이 결여되고 절제되지 않은 의견의 제시에 따른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거나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새로운 자아정체성과 인간관계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사회적 정체성을 탈각시켜줌으로써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수도 있다. 조사결과는 전자적 공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나 익명성이 반드시 불신이나 혼란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정과 헌신 그리고 신뢰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공동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전자공동체는 기술적인 관계나 법적인 관계만으로 치환될 수 없는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바탕이 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뢰에 대한 이해가 더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조동기

1996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사회조사의 가능성과 한계 — 전자설문 조사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Working Paper 시리즈  
2.

#### Barglow, Raymond

1994 *The Crisis of the Self in the Age of Information*. New York:  
Routledge.

#### Baym, Nancy K.

1995 “The Emergence of Communit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p. 138-163 in Jones (1995).

#### Benn, Staney

1988 *A Theory of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akwell, Glynis M. (ed.)

1992 *Social Psychology of Identity and the Self Concept*. London: Surrey  
University Press.

#### Casey, Catherine

1995 *Work, Self, and Society: After Industrialism*. New York: Routledge.

#### Elgesem, Dag

1996 “Privacy, Respect for Persons and Risk”. Pp. 45-66 in Ess (1996).

#### Ess, Charles (ed.)

1996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lbany: SUNY Press.

- Giddens, Anthony
- 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Oxford: Polity Press.
  -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Oxford: Polity Press.
- Goffman, E.
-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 1983 "The Interaction Or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17.
- Gouldner, Alvin
- 1976 *The Dialectic of Ideology and Technology*. New York: Seabury Press.
- Harbermas, Jürgen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 1981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Boston, MA: Beacon Press.
- Hogg, H.A. and D. Abrams
- 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 London: Routledge.
- Jones, Steven G. (ed.)
- 1995 *Cybersociety: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and Communit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Keller, Douglas
- 1992 "Constructing Postmodern Identity". Pp. 141-177 in Lash & Scott (1992).
- Lasch, Christopher
-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W.W. Norton.
  - 1984 *The Minimal Self*. New York: W.W. Norton.
- Lash, Scott and Jonathan Freidman (ed.)
- 1992 *Modernity and Identity*. Oxford: Blackwell.
- Le Rider, Jacque (translated by Rosemary Morris)
- 1993 *Modernity and Crises of 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 Lyon, David
- 1994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Basil Blackwell Ltd.
- Mead, G.H.
- 1962 *Mind, Self and Society*, edited by C.W. Morr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ael, James
- 1994 *Privacy and Human Rights*. Hampshire: Dartmouth Publishing Co.
- Miller, A.R.
- 1971 *Assault on Privacy: Computers, Data Banks and Dossiers*. Ann

- Arbor, Mi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iller, Steven E.  
1990 *Civilizing Cyberspace: Policy, Power,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New York: ACM Presss.
- Mischel, Theodore (ed)  
1977 *The Self: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Oxford: Basil Blackwell.
- Misztal, Barbara  
1996 *Trust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Polity Press.
- Moor, Jim  
1990 "The Ethics of Privacy Protection". *Library Trends* 39: 69-82.
- Morley, David and Kevin Robins  
1995 *Spaces of Identity: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New York: Routledge.
- Poster, Mark  
1990 *The Mode of Information: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ontex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s.
-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Turkle, Sherry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Turner, J.C.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 Wessells, Michael  
1990 *Computer, Self, and Societ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Westin, Alan F.  
1970 *Privacy and Freedom*. London: Bodley Head Co.